

학운IC 하이패스 앞 횡단보도…예상대로 ‘슬로우패스’

신호 걸리면 10여대 늘어… ‘현금 차로’ 차량과 엉켜 사고 위험도
“요금소 앞 정지선 등 도로 개설 목적에 맞지 않은 부실 도로” 지적
광주시 “표지판 추가 등 개선방안 논의”…경찰, 11일까지 교통지도

“하이패스(Hi-Pass)요? ‘슬로우 패스(Slow-Pass)’ 아냐가요?”

7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제2순환도로 학운IC 진출로(A램프, 두암·각화→학운교차로 방면) 하이패스 차로는 길게 늘어선 차들로 복잡했다.

지난달 31일 개통 당시만해도 출·퇴근시간이면 극심했던 일대 교통체증을 줄여줄 것이라는 광주시 등의 기대는 개통 일주일도 못돼 무너졌다.

이날 IC 일대에서는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한 직후 불과 10여m 앞에 그어진 정지선과 횡단보도, 신호등, 속도위반 카메라(시속 30km 제한)에 놀라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는 차량들이 잇따랐다.

요금소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정지신호라도 들어오면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 8~10여대가 길게 늘어선 하이패스 구간까지 정체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금차로를 통과한 차량과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친 차량 간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우회전이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현금 전용’ 차로를 통과해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직진하는 하이패스 차량이 마주치는 아찔한 장면도 이어졌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 혼잡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개설 목적에 맞지 않은 부실 도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다보니 급정거하거나 멈추는 차량들이 하이패스 요금소까지 길게 늘어선 하이패스 시스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인근 사거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도영(여·59)씨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들이 가게 앞까지 꼬리를 물고 늘어선 통행량이 개선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학운IC 진출로가 현금 수납 1차로만 운영되면서 차량정체가 빈번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3억 5000만원을 들여 120m 길이의 차로 1개를 신설하고 하이패스 요금소를 설치했다.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하이패스 시스템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소태동 제2순환도로 학운교차로 방면에 하이패스 전용 도로가 설치돼 있다. 오른쪽은 하이패스 요금소로부터 200여m 떨어진 곳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들.



을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이패스 요금소를 고속으로 통과한 차량들이 4차선 도로와 중앙분리대 등을 따라 25m 넘게 그려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 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인근 금호·현대·무등·라인 등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운림2차 무등파크맨션은 관리소

장 명의로 게시문을 부착하고 ‘불편 사항을 경찰청과 도로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가 IC 주변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해결은 커녕,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는데도, “제2순환도로 본선 정체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과 대응 태도에 대한 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교통안전 표지판을 추가하거나 기존 표지들을 알아보기 쉽게 조정하는 등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운IC에 교통경찰관을 보내 교통지도를 할 방침이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

민변, 제주항공 참사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

“국토부, 유족 알 권리 보장 안해”…교신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키로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이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맞아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는 참사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지 1분만에 비정상으로 기수를 틀어 착륙을 시도한 점, 사조위의 발표와 달리 복행 시도 이전부터 조류충돌이 발생한 정황이 나온 점, 기장이 랜딩기어(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은 점, 블랙박스 사고 직전 작동 중지된 점 등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돼 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토부가 유족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국토부 사조위가 일부 유족에게 사

고 직전 교신 기록(4분 7초)을 공개하는 과정과 관련, 음성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공개한 점, ‘누설 금지’, ‘논평 금지’ 서약을 받아 공문화를 가로막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민변은 “교신 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민사 증거보전절차신청, 유족들이 제기하는 형사고소 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HL8088편이 동체 착륙 후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양항 연안 대형 고래, 왜 다시 돌아왔나

길이 20여m 향유고래 관측…고래연구소 “동선 추적·원인 분석”

최근 광양항에 나타났던 대형 고래가 다시 송도 연안에서 관측됐다.

〈사진〉

관련 기관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변 선박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국립수산과학원 울산고래

연구소와 여수해경은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께 광양항 송도 북방 0.2해리 구역에 등장했던 대형 고래가 아직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고래연구소, 아쿠아플라넷 등 자문을 거쳐 이 고래를 향고래(향유고래·몸길이 15~20m)로 추정했다.

관측 당시 머리 부분에 굽힌 상처가 있으나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해경의 유도도 만바다로 사라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다시 연안에서 목격됐다. 고래는 수심 2m가량 바다에서 등 부위 4m가량을 수면 위로 노출한 채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가 발견된 일대는 최고 수심 13m로 얇고, 광양항에서 만까지 거리도 4km가량에 걸쳐 바다가 형성돼 있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죽어 있는 고래가 종종 연안 지대에 떠밀려오는 경우는 있으나, 단독으로 고래가 밀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난해 항공 조사와 2022년 선박 조사를 통해 국내 해안에서 향고래가 발견된 적도 있다”며 “이례적인 경우이기에 동선을 추적하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전남 강풍 속 온화한 날씨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8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 광주와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9도, 최고 16~19도)보다 2~5도 가장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7~11도, 낮 최고기온은 15

~23도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9일 오후부터 광주와 전남에 5~1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한빛원전 5호기 계획 예방 정비 연료 교체 등 안전성 확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10시 한빛5호기(가압경수로형·1000MW급) 제15차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비 기간 중 원전 연료 교체, 원자로 상부 헤드 교체, 1차 기기 냉각해수 계통 회전 여과망과 앵커 보강 및 교체 시공 등을 통해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가동 승인을 받아 6월 중순께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 **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